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67호 현대불교
2010년 1월 20일(음 12월 6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자유권을 얻으려면 자기 참주인공을 믿어야

새해에는 힘차게 살아가고 싶어요

☞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물질의 세계에서 움푹달라져 못하고 살던 제가 무한량의 마음의 세계를 알게 되어서 그대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마음을 써야 새로 밝아 오는 한 해도 가족들을 잘 견주하며 남들에게 너무 뒤처지지 않게 뒷바라지해 나가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주인공을 진실히 믿습니까? 그 믿는 마음은 '주인공, 이런 걸 해 주십시오, 저런 걸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을 근본자리에다가 다 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림 악과 선, 일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면, 양면을 돌아가면서 다 놓을 때 비로소 무엇이 거기서 생안이 되느냐? 생각 내는 마음입니다. 믿고 놓아서 생안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천 리를 갈 수도 있고, 한 걸마에 저승에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앉은 자리에서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와 더불어 이 세상에 광대무변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 마음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죠. 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본입니다! 내놓을 수도 없고 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근본자리에서 광대무변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구, 이렇게 놓고 가는데도 안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안되는 것도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도 놓는다면 우린 어떻게 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믿는다면,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놓고 마음을 잘 낸다면 일이 잘 돌아가게 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내야 합니다. 꿈을 꾸고도 자기가 언짢게 생각을 하고 '아이구, 꿈 잘못 꾸구나. 이거 언짢은 꿈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언짢게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은 생각 내는 걸 그냥 우습게 보고 하루 살면서 그냥 쉽게 생각 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 한 번 내는 데 보이지 않는

물질 없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리를, 그렇게 마음 한 번 내는 게 얼마나 귀중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그 생산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심봉은 그냥 거기에 심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움푹거리지 않죠. 생산처에 자동적으로 번호 없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남다른 남, 무쇠같은 무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전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줄줄이 줄줄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심봉에다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서 나한테 생안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생안을 해내는 데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은 조금만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질 않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착을 두게 되고 그렇죠. 욕심을 두게 되는 건 내가 생각 한 번 잘못한 까닭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거 닥치는 것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가진 것 내버릴 필요도 없고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보고 욕심부리지 말랬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요. 잘 쓸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마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말도 잘하게 되고 행도 잘하게 되지마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과 말이 잘못 나갑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행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억과가 많아서 이러

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저께 없는 오늘은 없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게 어디 내 앞에 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처!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닦치는 대로 생각을 잘해서 놓는다면 스스로 아주 훌륭하게 만 가지 생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 마시고 믿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자리에다 맡기세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

말인가요?

☞ 예를 들어서 평민에게도 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뭐 스님네들만, 고승에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리가 나오는 것은 이게 공부할 때 항상 그 뼈마디마다 이게 이 몸뚱이 자체가 바뀌니까. 인체가 자주 바뀌면서 그냥 녹두알같이 이렇게, 갑자기 깨어 보면 그냥 붙어 돌아가죠? 그렇듯이 인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을 표현하자면 한 사람의 마음이, 깨달으면 즉, 원자에서 입자가 수천수만이 되죠. 원자에서 입자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린이를 여럿 낳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한생각에 천백 억화신으로다 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는 정신의 액체죠. 즉 말하자면 이바

른쪽 왼쪽의 작용에 의해서 사대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액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에서 또 붙어서 저 감각을 붙여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삼각형으로 된 사람이 있는데, 회고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은 삼차원을 넘어선, 쉽게 말해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다 통달한 사람이고, 둥글게 나와도 회개 나온 것이 있고 붉게 나온 것이 있고 색색으로 나온 것이 있고 파랗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죠. 법을 주장했던 사람, 또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누가 "병만 고치는 게 법인가?" 하고 흥을 봐도 그런 아랑곳없이 아픈 것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색색가지로 나옵니다. 모든 게 자기가 마음먹고 차원에 따라서 실천한 대로 그것은 분배가 됩니다. 그게 정신의 액체니까요.



그림 · 최주현

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가서 아! 자연적으로 스스로 마음의 능력이, 샘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제발 진실로 믿고, 가정의 괴로움을 털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털고, 자식들의 억보나 괴로움을 털고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리도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 고승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사리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리는 어떻게 돼서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사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마음도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정

그런데 또 도둑 사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투하는 데 아주 도를 통했다면 화투 사리도 있는 것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의 액체의 사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正) 사리나, 사(邪) 사리나 이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사탄 마구니의 액체 사리는 땅속에서 천 년이든 만 년이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나와서 번지면 세계를 망가트리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산중에 가다가 이만한 사리 하나를 주웠습니다. 해골이 그냥 모두 굴러다니는 데서 이만한 흰 사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아, 그거를 방에다 모셔다 놓곤 사리를 얻었다고 좋아서 이런 갑에다가 아주 좋은 은쟁반으로다 잘 해서 하얀 솜을 깔고 거기다 놔는데 아, 저녁이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훔쳐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훔쳐다 놓으면 그 나라에서, 그 고을에서 뭐가 없어졌다고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고도, 그거를 갖다 놓고도 내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인제, 그래서 패가 된 사람이 있어요. 패가가 되니까 그때서야 고을에서 전부 알고 그냥 묶어다가 아, 그것도 재상의 집에서 말입니다. 하하!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것이 즉 도둑 사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놓은 것을 그렇게 패가를 만들고 욕살이를 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면회 온 사람더러 아무 데 아무 데 산에 가서 그 해골 돌아다니는 거를 다 물어 주고 그 사리를 해골에서 집어 가지고 왔는데 묘지 해 놓은 것도 다 파서 도로 흐트러 놓고 그 사리도 거기 갖다 던져 버리라고, 그렇게 가서 일러 줘요. 그랬더니 패가망신 다 하고선 그걸 갖다 버리고 제 정신이 들어 가지고 욕살이 다 들고 나와서, 그 물건은 뒤 앞에선 알았으니가 다 도로 찾아가고 그러고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리 사리' 할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도 사람에게 따라서 무당 사리도 있어요. 또, 이 무당 사리를 잘못 어디 묻힌 거 일어다가 이렇게 한다면, 땅속에서 파다가 무당이 모셨던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놓곤 저거 하면, 그거 한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도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시다.

☞ 26면으로 계속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 정 : 2010. 1. 23(토) 오후 1시부터 ~ 1. 24(일) 오후 6시까지
-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H·P 010-2031-1233 ☎ 02) 313-5047

※ 수료사 7층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백천사에는 오후 1시까지 도착바랍니다.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 구병시식, 중생제도 안식처

'빙의 치료 대가' 혜봉스님

구병시식 빙의퇴치 영가천도 지장도량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정신적인 '빙의'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스트레스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영적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심령(心靈) 치료이며 그중의 하나가 빙의 원인을 풀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빙의 치료 대가' 혜봉 큰스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중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아닌가!!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병을 심령치료로서 지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영적치유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험이 살아있는 소원성취 기도도량'

천년고찰 부처굴 지장선원'

- ◆ 구병시식 다른곳에서 치렀으나 차도가 없는 분
- ◆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지 않고 아프신 분
- ◆ 신병, 무병으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분
- ◆ 영가장으로 사업실패를 자주하는 분

주소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번지
전화 : (054)383-8553, H·P: 011-9585-4908
홈페이지 : www.jijangsw.com

비법전수반의일분
한국심령과학연구회

http://www.jijang999.com <전국지원, 지회 모집>

세계불교 지장선원종 총본산
동산 혜봉 대종사